

통일과 평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과목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 개발 연구*

김민수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이정은 (서울대학교)

김미혜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통일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교과목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문화예술을 학제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남북한 접점을 발견함으로써 통일·평화에 대한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 통합된 '통일 문화 형성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교양 교과목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교과목을 구성한다. 둘째, 북한의 일상을 시각예술 중심으로 문화예술 차원에서 이해하고 남북한 접점을 모색하는 계기를 갖는다. 셋째, 평화통일 및 통일문화에 대한 인식을 함양한다. 넷째, 통일 감수성 형성과 문화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교과목은 북한의 일상을 이루는 문화예술을 이해해 타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포용력을 배양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평화에 대한 점진적이고 창의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본 교과목은 대학생들이 역사·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강의개요와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북한

* 이 연구는 '2017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구사업'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의 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6개 분야(민족문화 예술, 미술, 도시건축, 산업미술(디자인), 공연예술, 영화)를 선정해 각 주차별 강의 세부 계획안과 강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통일문화, 북한문화예술, 북한일상, 대학통일교육, 교양교과목.

I. 서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남북한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범국가적인 사안이다. 급변하는 정치·외교 관계 속에서도 남북한이 서로를 향한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분야인 사회·문화·예술의 차원에서 점점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일상적 차원에서 북한의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평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일상성은 특정 사회가 구축해 온 문화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또한 시각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프로세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일상적 차원에서 북한의 문화예술을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 사회의 삶 속에 내재하는 시각적 아비투스(habitus)를 통해 체제적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성격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행동, 취향, 인지와 판단 등의 일상적 성향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상 속 문화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시각예술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보여지는 시각예술이야말로 북한의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문화·상징의 변증법』 (서울: 그린비, 1997, 2016 개정판), p. 156.

일상을 대변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시대의 주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의적으로 통일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교양교과목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교과목은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문화예술(민족문화예술, 미술, 도시건축, 산업미술(디자인), 공연예술, 영화 등)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문화 및 예술적 정체성을 학제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해 역사·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문화예술의 접점을 발견하고 ‘통일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2016년에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 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통일 당위성’의 관점이 사회·문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입장보다 정치·군사 측면에서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입장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통일을 국가의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대안으로써만 바라보는 통일 의식의 한 단면을 방증한다.²⁾ 하지만 통일의 목적은 단순히 국가의 정치·경제의 이익 추구하고 사회의 안정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제도와 영토의 통합이기 이전에 사람과 삶이 만나는 문화예술적인 내적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적통합이 지니는 중요성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독일은 냉전 체제에서 40여 년간의 분단을 겪고, 1990년에 공식적으

2)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2016 통일의식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 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실용적, 도구적 관점의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근식 외 공저,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 260-261 참조.

로 통일을 이루었다. 1969년부터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는 동방정책(Ostpolitik)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의 교류를 시도하였으나, 문화·심리적 측면에서 지속적 분단 상태³⁾를 겪어야만 했다. 남한과 북한은 독일의 흡수통일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단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에 시행된 ‘대학생 통일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 대학생들의 52.2%가 통일의 방법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⁴⁾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통일인식에 대한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문화의 통합은 일방적 ‘흡수’가 아닌 상호 간의 ‘삼투’ 현상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사회의 심리·정서적 통합 속에서 가능하다. 타인의 삶과 문화예술에 대한 배려심과 포용력은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통일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통일교육이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⁵⁾을 뜻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인 동시에 성인인 대학생은 통일교육 대상자로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2011년부터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초·중·

3) 일례로 통일 이후 독일에 등장한 ‘게으른 동쪽 것(Ossi)’, ‘거만한 서쪽 것(Wessi)’,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오스탈기(Ostalgie)’ 등의 신조어들은 동·서독 주민 사이의 극단적 감정 대립을 보여준다. 독일의 문화식민화 현상은 동서독이 서로의 문화적응에 실패하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김누리 외 공저, 『통일과 문화, 통일독일의 현실과 한반도』 (서울: 역사와 비평사, 2009), p. 9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엮음,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이후 독일의 문화통합과정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p.15 참조.

4) 정용하·강성훈,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대학생의 남북관계 인식변화 - 노무현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55권 (2015), p. 147.

5)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국가법령지원센터(온라인), <<http://www.law.go.kr/>>.

고의 통일교육과 달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학습 대상자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현황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교육체계가 확립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 내의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으로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이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경험하여 분단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적용한 연구 방법은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북한 원전 자료의 조사와 수집⁶⁾, 분석을 진행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하였고, 각 대학의 교과목 개발 현황은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과목 개발의 연구 자료로 삼았다.

II. 북한 문화예술 교과목 현황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에 개설된 북한·통일 교과목 전반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추가하여 2017년 8월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 문화예술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조사하였다. 현재 대학 내에서 북한 문화예술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대학교 학사과정에 북한학과가 개설된 학교로는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관동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신문대학교, 조선대학교, 인제대학교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과가 2000년대 들어 폐지 및 통

⁶⁾ 북한 원전 자료 수집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1차 자료를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한 2차 자료를 참고하였다.

폐합되거나 정원이 축소되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⁷⁾, 고려대학교(세종)의 통일외교학부, 인제대학교의 통일학부(자기설계전공 내) 등 세 학과⁸⁾만이 독립된 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학과를 제외한 대학 교양·전공 교과목으로 북한·통일 수업을 개설한 학교는 전국 4년제 대학 222곳 중 104곳이 있으며, 이중 97개⁹⁾의 수업이 정치(외교)학과, 윤리교육학과, 군사학과, 국제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등 전공학과 내부에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대학(대학원)에 개설되었던 북한 문화예술관련 교과목 전체를 살펴보면, 고려대학교의 ‘북한문학예술론’, 동국대학교의 ‘남북한비교문화론’, ‘북한예술론’, ‘남북한비교문화론’, ‘북한의문화학과예술’, 선문대학교의 ‘북한 문화예술’, 이화여자대학교의 ‘북한의 문화콘텐츠’, ‘북한의 대중매체’, 인제대학교의 ‘북한의 문화예술’,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북한문화론’, ‘남북한문화비교론’, ‘문화이론과방법론’ 등이 있다. 또한 2017년 북한·통일 관련 학과 중 대학 내에서 북한 문화예술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선문대학교, 인제대학교, 동국대학교 3곳이었다. 그러나 이 교과목은 모두 전공선택(전선) 과목으로서 전학년, 타전공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북한 문화예술 관련 교양과목이 개설된 대학은 없었다 (<표 1> 참고).

7) 동국대학교의 북한학과는 국내 최초로 1994년 설립되었으며, 일반대학원(1998)과 박사과정(1999)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2007년 40명에서 20명으로, 2011년 19명에서 16명으로 지속적으로 정원이 감축되었다. 김성배 외 공저, 『대학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2015), pp. 44~45 참조.

8) 2017년 8월 기준.

9) 배영애,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과 평화』, 제9권 1호 (2017), p. 328 참조.

<표 1> 2017년 전국 대학교 학부생 대상 북한 문화예술 교과목 개설 현황

교과구분	개설대학	교과목 명
전선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북한 문화예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북한의 문화예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의문학과예술

특히 본 연구에서 교양교과목 개설을 목표로 하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총 17개의 북한 관련 수업 중 전공 수업으로 14개가 개설됨을 알 수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에 비교적 골고루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전공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과목은 ‘남북관계와 통일의 전망’,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북한학개론’ 등 총 3개 수업이 개설되었으며 북한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교양 교과목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2017년 서울대학교 북한·통일관련 개설교과목 현황

개설대학	교과목 명	교과구분		내용구분				
		교양	전공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기타
기초교육원	남북관계와 통일의 전망	○		○				
인문대학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				○		
사범대학	통일교육론		○				○	
	북한학개론	○				○		
	통일교육연구		○				○	
	남북한사회연구		○		○			
	통일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				○	
사회과학대학	통일시대 국어교육 연구		○				○	
	북한경제론		○	○				
	북한지역연구특강		○					○
	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		○			

농업생명과학대학	북한농업		○					○
법학전문대학원	북한법		○		○			
의과대학	통일의료		○					○
치의과대학원	통일치의학 개론		○					○
국제대학원	북한세미나 (북한의 정치와 경제)		○	○				
	북한세미나 (북한의 사회와 문화)		○		○			
계		3	14	3	4	2	4	4

Ⅲ. 통일 · 평화 문화예술 교과목 개발의 기본 방향 설정

북한에 대한 논의는 정치·경제·외교·군사 분야 뿐 아니라, 남북한 양측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주로 정치·군사·경제적 주제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일상을 형성하는 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일·평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의 기본 방향을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1.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 이해

현재 대학생이 지니고 있는 북한에 관한 일반상식은 사실에 기초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특정 언론과 외신, 온라인 매체에서 재가공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악화로 오래된 북한의 정보를 현재의 실정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생과 일반 국민이 통일의 문제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경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간접적인 경로로 습득했던 북한의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정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하였다. 평화 통일을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다원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 강의안은 북한의 문화예술 6개 분야로 선정하여 각 분야의 개념과 특성부터 정확하게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선전예술의 성격을 지니기에, 북한의 삶과 일상 속 풍경을 형성하는 주요 시각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문화예술을 주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6가지(민족문화예술, 미술, 도시건축, 산업미술(디자인), 공연예술, 영화)분야로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사회문화 및 예술 정체성을 학제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6개의 문화예술이 지니는 시각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미적 감흥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시각성은 단순히 '이미지의 보여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의 사회적 경험을 구조화시키는 메커니즘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¹⁰⁾ 문화예술에서 감지된 변화는 곧 사회의 변화를 뜻하며, 이는 북한 일상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학문보다 실제 경험이 중요함에도 북한의 자료는 특수 자료로 분류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교과목은 북한에서 생산된 신문, 간행물, 단행본 등의 직접적인 1차 자료 및 원전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도록 구성되었다.¹¹⁾ 또한 북한 관계

10)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문화·상징의 변증법』, pp. 156~157.

11) 강의안에 수록된 1차 자료(사진, 영상, 원전)의 경우 지면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자의 인터뷰, 새터민과의 대담 등을 통해 북한의 생활을 접하고,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해 북한 문화예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2. 일상생활과 문화예술 차원의 남북한 접점 모색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의미하는 ‘일상’은 시대와 국가를 넘어 모든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삶의 행위이다. 우리의 삶은 고정된 양식이 아닌 일종의 흐름과 같은 것으로서, 일상¹²⁾은 가장 천천히 변하는 동시에 변화의 징조가 가장 침예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일상 속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생생한 반응점’¹³⁾과 같다. 북한의 문화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일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일상의 관점에서 북한 문화예술의 다양한 실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 실생활의 촬영영상, 공연영상, 미술작품 등의 감상을 통해 도시문화에서 시각문화까지 다양한 북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북한 문화예술을 북한 주민의 시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는 과정의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함양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문화독해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남북한의 문화 교류는 실행에 있어 가장 부드러운 반면 그 기대 효과는 엄청난 큰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12) “일상은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면서 한편으로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다. 일상에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혁명의 기운이 싹트고 혁명은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종결된다.” 김기봉, “북한에 대한 일상사연구의 가능성과 의미,” 고유환 외 공저,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2010), p. 129.

13)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 · 문화 · 상징의 변증법』, pp. 12~21.

서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북한이 서로의 문화 접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의안은 남북한이 기술·협약을 통해 시행했던 문화재발굴사업¹⁴⁾ 및 전시회, 가극 및 예술 공연, 영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등의 교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접점 형성에 대한 의견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이 남북 문화의 이질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창의적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화통일 및 통일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017년 현재 남북한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실험과 무력 도발로 인해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¹⁵⁾ 1953년의 정전협정 이후 시작된 분단의 현실은 남북한 양측에 지속적인 물리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국제 외교와 안보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남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전쟁의 폐허를 재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필요성을 느꼈다.¹⁶⁾ 특히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

¹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4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학술토론회를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평양 일대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2006. 4.~5.),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2007~2010.5.24 중단), 개성 만월대 공동 전시회 개최(2015.10)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등 다양한 민족문화예술 부문 공동 작업을 진행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엮음,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p. 87 참조.

¹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8월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철광석, 광물 및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였다. “안보리 북한제재안 만장일치 통과, 10억 달러 규모 효과,” 『news1뉴스』 (온라인), 2017년 8월 6일; <<http://news1.kr/articles/3067410>> 참조.

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설정 아래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¹⁷⁾ 3단계로 구성하는 정책 기조로서,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하여 발전·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통일’ 자체보다 ‘남북관계개선’을 우선시하며 남한에서 먼저 진취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테제의 전환은 ‘선 평화, 후 통일’이라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이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계속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는 ‘5·24조치’를 펼쳤으며, 강경한 대북정책 속에서도 꾸준한 교류를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 번 형성된 한반도의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긴장감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7·6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민간 차원의 작고 쉬운 교류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선 평화 후 통일’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¹⁸⁾하였다. 이처럼 각 정부의 정책 기조

16) 남한 정부는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의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으며,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7·4남북공동성명(1972)’을 발표하였다.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은 이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198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2000)’,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으로 이어졌다.

17) 통일부 통일교육원 엮음, 『2016 통일교육 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 58 참조.

18) “먹구름 몰려와도 김대중의 길 따라 남북 다시 만날 것,” 『중앙일보』 (온라인), 2017년 8월 19일; <<http://news.joins.com/article/21856150>>.

와 통일 방안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굴절된 남북 관계 속에서 한반도가 취해야 할 통일의 입장이 '평화'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의 문제를 단순히 지정학·물리적 영역에 국한된 정치·경제·군사적 문제가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 전 지구적 사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과목 방향을 설정하였다.

4. 통일 감수성 형성과 문화시민역량 강화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는 분단 세대인 동시에 미래를 이끌어갈 통일 세대이다. 만약 통일 세대가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제도와 영토만의 통합만을 이루는 통일을 맞이한다면, 사회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2016년에 시행된 '통일의 추진 시급성'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¹⁹⁾를 보면, 분단의 고통을 직접 체험한 60대는 통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의 결과는 분단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벌어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분단을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남아있는 지금, 젊은 분단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의 감수성 형성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남북한의 통합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통일은 곧 국토 면적의 확장과 그에 따른 인구 증가, 내수 시장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로 이어지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¹⁹⁾ 정근식 외 공저,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40. <그림 1-1-2> '연령별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참조.

서의 통합은 실리적 이익보다 예를 들면 남한의 창작 자율성과 북한의 민족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식의 화학적 통합을 의미한다. 외적 통합이 아닌 내적통합,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화학적 통합을 지향하는 남북한 통합의 중심에 바로 문화예술이 위치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통일문화는 양국 사회의 전반에 호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합은 양과 양을 더해 더 많은 양을 환산하는 ($A+B=AB$)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가치와 가치가 만나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B=C$)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새로운 통일문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북한 문화예술 교육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문화정체성과 생명력을 잃지 않고, 타인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문화시민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V. 통일 · 평화 문화예술 교과목의 구성 및 운영 방법

1. 강좌목적과 개요

이 교과목 개발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추상적으로만 논의되었던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문화예술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데 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개념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에서 벗어나 일상을 문화예술의 차원에서 이해해보고, 남한과 북한이 지닌 이질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류 지점, 통일 문화의 접점을 균형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모색해본다.

2. 강의개요 및 계획

본 교과목은 서울대학교 교양 교과목의 설치를 목적으로 계획되었고, 수업의 총괄 개요 및 계획은 대학의 기준을 따라 설계되었다. 교과목 명칭은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로 한다. 학점 구조는 3학점이며, 매주 강의시간은 보통의 교양과목과 동일하게 3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강의 개설 주기는 매 학기 개설을 권장한다. 이는 수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고려한 것이며, 신설된 교과목이 매 학기 발전하려면 지속적인 수업의 개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과목의 개설주체는 교양교과목 담당기관으로 한다.

3. 강의 운영

1) 수업형태 : 북한의 문화예술 6개 분야 주제 강좌 실시

총 15주에 걸쳐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업을 실시한다. 문화예술 분야 중 남북한의 접점을 살필 수 있는 민족문화예술, 미술, 도시건축, 산업미술(디자인), 공연예술, 영화 등 주로 시각예술의 차원에서 총 6개 분야를 선별하여 각 2주차씩 진행한다. 총 12주차의 주제 강좌 수업 중 첫째 주에는 수업 시작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2주차부터 14주까지는 문화예술 분야 강의를 실시한다. 12주차 수업의 중간이 되는 시점인 8주차에는 학생의 창의적 접근과 개인의 관점을 논할 수 있도록 각 주제에 맞는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의 마지막 15주차에는 수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 매체 자료 활용과 토론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수업

문화예술은 단순히 글로 읽어 깨달을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다. 본 강의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사진, 공연 영상, 음악 등)를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학습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특히 가공된 2차 자료가 아닌 가급적 북한 원전에서 추출된 1차 자료를 선별하여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타 문화에 대한 감성적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학기의 중간과 마지막인 8주와 15주차에는 소집단별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 토론을 위한 집단은 서로 학년이 다른 타 전공 학생으로 6인에서 8인으로 구성한다. 팀별 토론 주제는 교사가 북한 문화예술 6개 분야에 기반 한 주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집단별 토론 주제 특성으로는 한 주제에 대해 여러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충적인 성격의 주제를 제시한다. 주제의 난이도는 여러 구성원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로 선택한다. 주제로는 특정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교류 방안이나 예술인 교류 등 실제로 적용 가능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대비책 등을 토론한다. 이를 통해 통일을 향한 모색점과 이후의 대안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열린 생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수업의 내용을 삶과 연계하여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 아이디어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 및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²⁰⁾ 토론의 전체적인 모니터링 강의는 책임교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소집단별 배정된 조교가 토론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고 조언한다.

²⁰⁾ 이일하 외 공저, 『창의성 함양을 위한 대학 융합교양교과목 <대학 창의성> 개발』(서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참조.

3) 담당 교수진의 구성

본 교과목은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남한의 문화예술 전반을 비교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문화예술의 넓은 범위와 여러 주제를 단일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 교수진과 수업 조교가 수업자료와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수업에 진행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수업의 대상과 수강인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학년의 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인 만큼 책임교수의 원활한 지도가 가능한 50명으로 수강인원을 제한한다. 수강생의 전공과 학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성적평가 방식 및 요소

수업의 평가 방식은 다른 서울대 교과목과 동일하게 A-F 방식으로 진행한다. 성적의 평가는 출석 및 수업참여, 개인별 과제의 제출, 팀별 토론, 이해도, 발표력,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각 평가 지표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3> 수업의 평가 방식

평가요소	평가지표	점수 백분율
출석 및 수업참여	성실성	30%
개별과제	창의성 및 충실성	30%
토론 학습	발표력, 참여 수준, 창의성, 유용성	20%
기말 시험	성실성, 수업의 이해도, 창의성	20%
총 합계		100%

추후 본 과목이 교양 필수 과목처럼 발전한다면 A~F형과 S/U 방식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본 강의가 확대 개편 되어 많은 학생이 수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두 가지 평가 방식을 학생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선택형 평가 방법을 실시한다면 강의 시작 후 ¼시점에서 선택하게 하여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방식의 다양화는 과열된 점수 경쟁의 심화를 막고 학생이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수업 선택의 자율성을 증진한다.

6) 조교활동

토론 주제에 맞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팀별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동양 문화권 학생들은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교들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참여가 필요하다.

4. 교과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행정적 지원

학생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없다는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원전 자료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북한 문화예술 자료(공연 예술 및 영화 상영 등) 사용 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 등의 자료 이용 승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²¹⁾ 또한 본 교과목은 체험형 수업으로 북한 문

²¹⁾ 북한 문화예술 관련 자료들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다수의 자료가 유통되고 있는 편이 아니며, 사용에 대한 제재가 있기도 하다. 시각 및 영상, 음악 자료의 활용의 경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여를 1차로 추진하고 서울대학교가 보

화예술을 소개하기 위해 음향, 영상, 시각 자료를 풍부하게 사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의 집기 및 공간지원도 필요하다.

2) 인적 지원

체험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본 수업은 학생의 팀별 토론, 개인 과제, 실습을 돕기 위한 수업 조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전문가, 혹은 새터민과의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 내부 인력의 지원과 외부 인력의 활용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3) 물적 지원

문화예술은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것으로 본 교과목은 체험형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토크나 라운드테이블 추진 시 인사 초청을 위한 일정액의 지원이 필요하다.

5. 교과목 발전 방향

1) 교과목의 개설기간 확대로 지속성 유지

북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편이다. 교과목의 시의성과 중요성,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본 교과목의 개설기간은 한 학기 이상으로 확

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통일부 산하의 북한 자료센터에서 지원을 받는다. 현재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해 신청서를 받아 영화 상영회 및 새터민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대·유지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갈 주역임을 상기할 때 본 교과목은 교양 필수 과목처럼 매학기 개설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2) 교과목 운영 방식의 다양화로 접근성 강화

본 교과목은 단순히 강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학교,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이 북한 문화와 관련한 경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 정부(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의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지도교수, 대학원생 조교의 도움을 받아 참여하거나 학생 자율 세미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교과목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V. 개발된 교과목 세부 강의안

1. 오리엔테이션 및 북한의 문화예술 원리

강의의 시작은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수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와 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특히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북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임을 전달한다. 15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의 각 주차별 강의 주제와 내용

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수업 평가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토론 수업의 목표와 진행 및 참여 방식,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Q&A 시간을 갖는다.

2주차부터 진행되는 수업에 앞서 간략하게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북한의 문화예술 목표와 창작 원리를 설명한다. 남한은 보편적 문화의 역사와 다양한 이론에 기초해 개인의 창작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반면, 북한의 문화예술은 창작자들의 자율적 미적 가치보다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사상적 교화, 당 정책의 효율적 전파를 위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에 대해 설명한다.²²⁾ 또한 우리의 문화예술 개념에 대응하는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 원리를 설명한다. 예컨대 북한은 문학예술의 핵심으로 삼아 예술 활동이 전개된다.

2. 민족문화예술

분단 체제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남북한 문화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만년의 민족문화와 예술에 대한 기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2주차에는 북한의 민족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북한의 민족문화예술은 남한처럼 단순히 민족적 특성을 지닌 문화와 예술을 뜻하는 말을 넘어서 정책, 이념 및 체제성 등과도 맞닿아 있어 보다 정교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권수립 단계에서부터 북한은 항일혁명투쟁을 바탕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민족성과 민족문화를 강조해 왔다. 북한은 특히 ‘일제 사상 잔재’를 뿌리 뽑고 문화예술을 통해 민족문화를 건설하

²²⁾ 김용범·신현욱,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화콘텐츠 인프라』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p. 12.

고자 하였으며 독자적인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강의안에서는 북한의 민족문화정책의 시대별 흐름을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살펴본다. 또한 남북한의 민족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북한 역사의 시대구분을 비교해 살펴본다.²³⁾ 북한의 역사관을 반영하여 1990년대 지정된 민족문화예술 유산(국보와 준·국보급 보물)의 감상²⁴⁾을 통해 남북한 역사관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접점을 모색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한다. 이러한 강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남북의 국가공동체의식과 민족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미술

북한 미술은 남한과 다른 척도를 갖고 있다. 북한 미술은 ‘혁명적 미술’을 지향하며 혁명성의 구현을 미술의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²⁵⁾ 혁명적 미술은 구체적인 ‘혁명’을 주체로 한 미술을 의미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당국에서 실시하는 여러 문예 정책과 지도자의 교시, 당 정책상의 강령에 따라 미술 창작에 임하게 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미술 정책을 표방

23) 남한의 역사 시대구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96년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연대표 pp. 308~309의 시대구분을 참고하였으며, 북한의 역사 시대구분은 ‘조선전사’ 1~33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1982)의 목차와 내용 및 1990년대 이후의 변화된 서술 내용에 의거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엮은 『북한의 역사학(1)』, p. 325를 참고하였다.

24) 국립중앙박물관 엮음,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6) 참조.

25) 미술의 중요한 주제로서 ‘혁명’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 수립보다 이전에 있었던 김일성의 ‘항일혁명’을 일컫는다. 항일혁명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예술의 중요한 주제 방향으로 성립되었다. 이일·서성록, 『북한의 미술』 (서울: 고려원, 1990), p. 28.

하며 예술가는 당의 정책에 따라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기초한 작품을 탄생시킨다. 또한 해방 이후 북한 미술의 60년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 유화가 퇴색하고 조선화가 독보적으로 발전하게 된 양상을 살펴본다. 2000년 이후 선군 사상을 주창하며 발전하게 된 북한 현대 미술의 특징을 논의한다. 특히 북한 미술에서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조선화의 기법, 특징, 주요 작품과 다른 문화권과 비교해 특색이 강한 기념비 미술을 감상한다. 최근 북한 미술은 유통을 금지하던 전례를 벗어나 해외 수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만수대 창작사’를 비롯한 미술창작사들의 해외 수출 사례를 통해 최근의 북한 미술의 근황을 살피고, 남북한 미술 교류의 방법을 모색한다.

4. 도시건축

한 문화권의 도시와 건축은 역사적 맥락과 문화정체성을 담고 있는 하나의 척도²⁶⁾로서 북한의 어제와 오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시 건축에 대한 독해는 도시와 건축이 속한 사회와 환경, 주민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도시와 건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인식되고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전체적인 도시 건축사를 조망하기 위해 ‘원시 및 고대건축, 중세 건축, 현대건축’으로 나뉘지는 건축사 시대구분을 연표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는 도시²⁷⁾ 건축물의 형태와 특성을

26) 김민수, 『한국도시디자인탐사』 (서울: 그린비, 2009), p. 5.

27)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 형성 단계와 같이 대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고 대도시와 소도시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도시 내 농업과 공업을 의무화하여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해방 후부터 지속하여 평양을 적극적으로 개발했고, 자연스럽게 각 도시의 개발 정도가 차이 나기 시작했다. 도시와 건축과 관련된 용어(수도, 지방, 도시, 농촌 등)는 북한에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대별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5. 산업미술(디자인)

북한에서 ‘산업미술’이라 부르는 디자인의 양상은 북한의 삶과 일상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남북 문화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북한의 산업미술은 남한의 디자인과 유사한 용어이지만 범주와 개념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 디자인·산업미술 분류를 통해서도 다른 디자인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살펴본다. 산업미술의 전개와 흐름을 해방 이후부터 살펴보고 디자인을 생산하는 주체를 확인해 본다. 북한에서 산업미술은 당 중앙 산업미술지도국, 학교, 창작사를 비롯한 다양한 제작 주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도와 교시를 받아 도안이 수정되고 실용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특징이 있다. 수업에서는 『조선문학예술년감』에 나타난 북한의 출판작과 수상작의 특성과 동향을 살피고 논의한다.

6. 공연예술

북한의 공연예술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체문예이론’에 기본을 두고 있다. 북한의 공연예술에는 연극, 가극, 무용, 음악, 교예예술 등이 있으며, 최근 대중예술, 대집단체조가 정기적으로 공연함에 따라 내부의 인민과 외부의 외국인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6주차에는 남한과 많은 차이를 보이며 발전한 북한의 음악과 무용 등 공연예술의 특징과 내용을 함께 학습한다. 북한의 음악은 주체음악으로 악기 개량 사업을

서 출판된 사전의 정의를 참조하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조선백과사전출판사, 2010).

실시하고 전통악기를 개량하여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혁명 가극이라는 장르가 독자적으로 있는데 연극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20세기 초의 창극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혁명가극 중에서도 가장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5대 혁명 가극, 4대 혁명 무용 등을 함께 감상하며, 북한 예술에서 중요시 여기는 예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 또한 가장 최근에 출범한 모란봉악단의 공연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대표작품 ‘아리랑’을 감상하고 특징을 논의해본다.

7. 영화

북한 영화의 대부분은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고 수용된다. 다른 문화권과 다르게 북한의 영화는 당의 정책 방향에 맞게 주제가 설정되고 정권과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효율적 무기이자 수단으로 이용된다. 북한의 영화는 김정일 집권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인민의 수준에 맞춰 영화를 제작하여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감정을 조직하고 설득과 호소를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영화 제작의 기본이 되는 『영화예술론』과 여러 영화제작시설, 제작체계를 통해 영화 제작 환경을 살펴본다. 또한 1970년대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은 북한 영화를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살펴본다. 혁명을 주제로 한 북한의 영화를 감상하고 남한과 다른 북한 영화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에 개봉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북한 애니메이션 고주몽을 통해 북한 내부의 역사와 민족의식을 살펴보고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아래(Under the sun)를 통해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북한의 현재와 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표 4〉 각 주차별 세부 강의안의 내용 구성

각 주차별 강의안		
문화예술 6개 분야의 설계 및 내용 구성		
1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북한의 문화예술원리	- 오리엔테이션 - 북한의 문화예술 원리 · 목표와 창작원리 · 창작의 원칙 · 창작된 예술의 특징
2주차	민족문화예술	- 민족문화예술의 기본 개념과 특징 - 민족문화예술 작품 감상 및 토론
3주차		- 북한의 역사시대 구분 - 남북한 역사관의 차이와 유사성 - 북한 민족문화예술 유산 감상 및 교류 방안 모색
4주차	미술	- 북한미술의 기본 개념과 특징 - 사회주의 미술 정책과 미술계 - 미술 60년의 특징과 흐름 - 북한 미술 감상하기(조선화, 기념비 미술)
5주차		- 미술 창작과 미술창작사 - 미술의 유통과 수출 사례(캄보디아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
6주차	도시건축	- 도시건축의 기본 개념과 특징 - 도시 건축사의 흐름 - 북한의 도시와 건축의 변화 및 특성
7주차		- 북한 도시의 상징건축(만수대창작소, 유경호텔 등) - 가로·광장·아파트 문화(청년거리, 모란봉거리 등) - 제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한반도 오감도' 전시사례) 감상
8주차	토론학습	- 문화예술 6개 분야별 주제에 대한 팀별 주제 토론 실시
9주차	산업미술 (디자인)	- 산업미술 개념 형성과 전개 - 북한 산업미술사 - 북한 산업미술 사례 I
10주차		- 북한 산업미술 사례 II - 국가산업미술전람회 속 디자인
11주차	공연예술	- 공연예술의 여러 장르와 특징(음악, 혁명가극, 혁명무용 등) - 여러 장르의 공연예술 작품 감상(무용과 가극)

12주차		- 모란봉악당 공연의 특징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대표작품 '아리랑' 감상
13주차	영화	- 북한영화의 특성과 흐름(발전사) - 북한의 혁명영화 감상하기
14주차		- 영화로 보는 북한역사와 민족의식(애니메이션 고주몽) -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북한의 현재와 교육(다큐멘터리 영화: 태양아래)
15주차	열린 마무리	- 라운드 테이블: 학생의 수업평가와 발전방향 논의

VI. 결론

한반도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의 삶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문화의 이질성도 점차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문화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향한 긴장을 이완하고, 배려와 이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을 정치·외교의 협상 대상자 혹은 군사적으로 대치된 주적이라는 시각을 넘어 우리와 똑같은 일상과 문화예술을 영위하는 또 다른 삶터로 인식하고, 양측에 호혜적일 수 있는 교류와 접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을 배우는 것은 북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해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과목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을 개발하는데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남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이 함의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학제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창의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는 앞으로 통일세대로서 대학생들이 남

북한 문화예술의 점점 형성을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기본 방향과 강의안의 구성을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 각 대학에 개설된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와 자료를 검토했다. 아울러 연구가 진행된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각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을 추가 조사했다. 북한·통일 관련 학과 중 북한의 문화예술과 연계된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3개였으며, 이 중에서 관련 분야 전공생이 아닌 일반 학생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양과목은 없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정보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수업이 부재한 것이다.

3장에서는 교양교과목의 기본 방향을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구체적 이해’, ‘일상생활과 문화예술 차원의 남북한 점점 모색’, ‘평화통일 및 통일문화에 대한 인식 함양’, ‘통일 감수성 형성과 문화시민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교과목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립하였다. 4장에서는 강의의 개요와 주차별 계획, 수업의 운영방식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원되어야 할 내용과 교과목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교과목 개발을 위해 정규 학기에 해당하는 15주차의 강의 세부 계획을 소개하였다. 강의의 목표와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1주차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으로, 12주에 걸쳐 북한의 문화예술 6개 분야(민족문화예술, 미술, 도시건축, 산업미술(디자인), 공연예술, 영화)에 대한 강의를 구성하고 수업의 중간과 마지막 시점에 팀별 토론 수업과 라운드 테이블 등의 논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안된 교과목이 북한을 바라보는 냉전적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일상 차원에서의 삶과 문화예술에 대

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세대의 주역이자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문화예술 교양교과목을 개발했다. 셋째,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수업을 지향하였다. 넷째, 강의안을 구성하는 교육 자료의 경우 가공된 2차 자료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의 1차 자료와 통일교육원, 통일평화연구원 등에서 수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강의안을 구성하였다.

북한의 문화예술을 일상과 연결 짓는 교과목 개발의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고자 했던 교과목과 동일 조건의 교과목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타 대학에 개설된 북한 문화예술 교과과정의 내용은 분석이 가능할 만큼 공개되지 않아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 교과목의 성격과 조건을 넘어, 북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타 대학의 교과목의 내용을 분석한다면, 통일교육 연구에 있어 든든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잦은 핵 실험과 무력 도발 위기로 경색된 현재 상황을 타계하고 더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통일과 평화를 기반으로 통일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교과목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화시민역량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북한 문화예술교육이 통일 이후 안정적인 통일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문화원동력이자 문화저수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고유환 외 공저.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 평양: 조선백과사전출판사, 2010.
국립중앙박물관 엮음.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통천문화사, 1996.
국립중앙박물관 엮음.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6.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북한의 역사학(1)』. 서울: 남북역사학논총 2, 2002.
김누리 외. 『통일과 문화, 통일독일의 현실과 한반도』. 서울: 역사와비평사, 2009.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디자인 · 문화 · 상징의 변증법』. 서울: 그린비, 1997(2016 개정판).
김민수. 『한국도시디자인 탐사』. 서울: 그린비, 2009.
김성배 외 공저. 『대학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2015.
김용범 · 신현욱.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화콘텐츠 인프라』.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배영애.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과 평화』 제9권 1호 (2017).
이일 · 서성록. 『북한의 미술』. 서울: 고려원, 1990.
이일하 외 공저. 『창의성 함양을 위한 대학 융합교양교과목 <대학 창의성> 개발』. 서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정근식 외 공저.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정용범 · 강성훈.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대학생의 남북관계 인식변화 - 노무현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55권 (2015).
통일부 통일교육원 엮음. 『2016 통일교육 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부 통일교육원 엮음.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엮음.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이후 독일의 문화통합 과정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인터넷 자료

- “먹구름 몰려와도 김대중의 길 따라 남북 다시 만날 것.” 『중앙일보』 (온라인), 2017년 8월 19일; <<http://news.joins.com/article/21856150>>.
“안보리 북한제재안 만장일치 통과, 10억 달러 규모 효과.” 『news1뉴스』 (온라인), 2017년 8월 6일; <<http://news1.kr/articles/?3067410>>.
국가법령지원센터 : <http://www.law.go.kr/>.

Developing a Liberal Arts Course in the “Visual Arts and Culture of Everyday North Korea” for Unification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Kim, Min-Soo · Lee, Jung-Eun · Kim, Mi-Hy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urse in liberal arts education that would help undergraduates improve their creativity and sensitivity in preparation for the period of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course was designed to encourage the academic comprehension and interpretation of North Korean daily life and visual culture by immersing student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of North Korea.

Thus, the overarching goal for this course is to create a ‘culture of unification’ by proving students the abilities to understand the art and culture of North Korea via an academic approach; this will also benefit empathy and sensitivity in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cultivation of these capabilities is the driving purpose for the creation of an integrated unified culture.

The framework of this course is as follows. First, the main contents presented to the students will consist of specific and comprehensive data regarding North Korea. Second,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find their own answers through individual experiences in the everyday visual arts

and culture of North Korea which will help students develop their own point of view of unification and peace. Third, the course will encourage them to think upon the importance of peace attained through unification and of unification itself. Fourth, this course will inspire students to have sensitivity and instill mature civic awareness. The lectures will enable undergraduates to not only develop a note of thoughtfulness regarding North-South coexistence but also to approach unification with a balanced perspective.

In the study conclusion, we offer suggestions for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lecture contents derived from the 6 categories we have selected (national arts, arts, urban architecture, design, performing arts, and films). This study also proposes a detailed syllabus and the contents for each weekly lecture.

Key words: unification culture, visual arts and culture, everyday life, North Korea, unification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김민수(Kim, Min-Soo) —————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서울대 미대 응용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산업디자인학 석사,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이상평전』(2012), 『한국도시디자인탐사』(2009), 『필로디자인』(2007) 외 다수의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

이정은(Lee, Jung-Eun) —————

서울대학교 디자인역사문화전공 박사과정 중.

김미혜(Kim, Mi-Hye) —————

서울대학교 디자인역사문화전공 석사과정 중.